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교육, 40대까지 '가정/자녀 양육', 50대 이후 '노년 영성/삶'!

목회에 중점을 뒀던 할 대상으로 특정 세대를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교회는 모든 세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교회문을 일시적으로 닫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가정의 신앙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9월 9일, 가정사역단체 '한국FCJ 가정의힘'에서 주관하는 '생애주기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렸다. 한국교회의 침체를 극복할 방안으로 생애주기 교육의 실태조사 결과와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모든 세대의 교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특히 노년과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로 나타난 기독교인의 생애주기별 신앙과 교육 욕구, 가정의 신앙 실태와 노년기 신앙 특징을 다룬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성경적 교육에 대한 세대별 다양한 욕구가 확인되었는데, 받고 싶은 주제로 40대까지는 '가정/자녀 양육'이, 50대 이후는 '노년 영성/삶'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회 생활 전 영역에서 노년기 교인의 활동과 관심 등의 긍정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를 지원하고 활용할 교회의 과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가정 신앙교육 및 생애주기 교육 조사

조사개요

구 분	PART 1. 기독교인의 가정 신앙교육 및 생애주기 교육 조사	PART 2.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추적조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5세 이상~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기독교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총 2,000명 (유효 표본)	총 926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생애주기 연령대별 유의할당 - 청년기(만19-34세) : 500명 - 장년기(만35-49세) : 500명 - 중년기(만50-64세) : 500명 - 노년기(만65세 이상) : 500명	자녀 학교급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pm 3.2\%p$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4년 2월 22일 ~ 3월 29일(총 37일)	
조사 의뢰 기관	한국IFCJ 가정의힘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생애주기별 관심사와 신앙] 인생의 관심사, 50세 이후는 '건강'!

- 본인의 연령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그 결과 청년기는 '일/취업(32%)', 장년기는 '자녀 양육/교육(21%)', 중년기와 노년기는 '건강'이 각각 38%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신앙생활/영적 성장'은 각 생애주기별로 2~4위에 랭크됐는데, 장년기만 4순위로 꼽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요도 순위가 가장 낮았다.

[표] 생애주기별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출석 기독교인, 상위 5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청년기 (만19~34세)	일/취업 (32%)	배움/자기계발 (15%)	신앙생활/영적 성장 (14%)	결혼/출산 (13%)	건강, 재테크 (9%)
장년기 (만35~49세)	자녀 양육/교육 (21%)	건강 (17%)	재테크 (16%)	신앙생활/영적 성장 (12%)	일/취업 (12%)
중년기 (만50~64세)	건강 (38%)	은퇴 및 노후 대비 (19%)	신앙생활/영적 성장 (17%)	재테크 (8%)	일/취업 (5%)
노년기 (만65세 이상)	건강 (47%)	신앙생활/영적 성장 (24%)	은퇴 및 노후 대비 (10%)	인간 관계 (5%)	배움/자기계발 (3%)

※출처: 2024 가정의힘, '개신교인의 생애주기 교육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FCJ 가정의힘

신앙 관심사 1위, 노년기 이전: 마음의 평안, 노년기 이후: 영적 성장!

- 이번에는 신앙생활에 관심있다는 응답자에게 가장 관심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노년기 이전인 중년기까지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가장 많았으며, '성령 충만과 영적 성장'은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 장년기와 중년기는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2순위로 선택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표] 생애주기별 주요 신앙 관심사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 상위 5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청년기 (만19~34세)	마음의 평안과 위로 (19%)	삶의 의미와 목적 (18%)	구원과 영생 (14%)	성령 충만 /영적 성장 (12%)	물질과 건강의 축복 (11%)
장년기 (만35~49세)	마음의 평안과 위로 (23%)	물질과 건강의 축복 (18%)	삶의 의미와 목적 (16%)	구원과 영생 (14%)	성령 충만 /영적 성장 (13%)
중년기 (만50~64세)	마음의 평안과 위로 (20%)	물질과 건강의 축복 (19%)	성령 충만 /영적 성장 (16%)	구원과 영생 (15%)	삶의 의미와 목적 (11%)
노년기 (만65세 이상)	성령 충만 /영적 성장 (20%)	마음의 평안과 위로 (20%)	구원과 영생 (15%)	물질과 건강의 축복 (11%)	삶의 의미와 목적 (8%)

※출처: 2024 가정의힘, '개신교인의 생애주기 교육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FCJ 가정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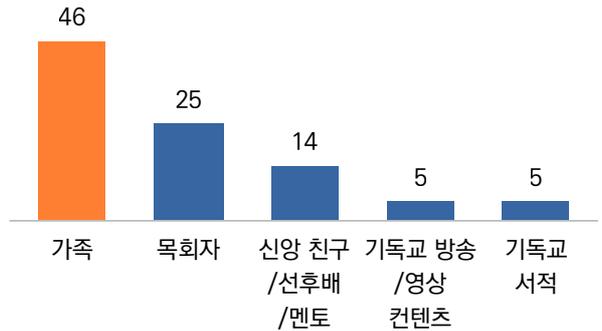
신앙 만족도에 영향주는 것, ‘목회자’보다 ‘가족’!

- 생애주기별 신앙 관심사 1위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중년기까지 1순위인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청년기가 69%, 장년기가 61%, 중년기가 56%로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노년기의 가장 큰 신앙 관심사인 ‘성령 충만/영적 성장’의 만족도는 84%로 매우 높았다.
- 신앙 관심사의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가족(46%)’이 가장 많았는데 오히려 ‘목회자’보다 크게 높았다.

[표] 생애주기별 신앙 관심사에 대한 만족도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 ‘매우+약간 만족’ 비율*)

구분	신앙 관심사 1위	만족도
청년기 (만19~34세)	마음의 평안과 위로	69%
장년기 (만35~49세)	마음의 평안과 위로	61%
중년기 (만50~64세)	마음의 평안과 위로	56%
노년기 (만65세 이상)	성령 충만/영적 성장	84%

[그림] 신앙 관심사 만족하는 데 영향을 준 것 (가장 중요한 일 만족하는 기독교인, 상위 5위, %)



※출처 : 2024 가정의힘, ‘개신교인의 생애주기 교육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신앙심이 가장 좋은 시절 영향 준 것, 30대까지 부모, 40대부터 목회자!

- 전체 대상자에게 시기별로 신앙심을 평가하게 한 후 가장 신앙심이 좋았던 시절에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 결과 30대까지는 ‘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후로는 ‘목회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신앙심이 가장 좋았던 시절별 긍정적 신앙 영향 요소 (교회 출석 기독교인, 상위 4위)

신앙심이 가장 좋은 시절	신앙에 긍정적 영향 준 것			
	1위	2위	3위	4위
초등학교 시절	부모(66%)	신앙 친구/선후배/멘토 (13%)	교회 양육 프로그램/영성 훈련(11%)	목회자(6%)
중학교 시절	부모(36%)	신앙 친구/선후배/멘토 (22%)	교회 양육 프로그램/영성 훈련(15%)	목회자(11%)
고등학교 시절	부모(32%)	신앙 친구/선후배/멘토 (25%)	목회자(15%)	교회 양육 프로그램/영성 훈련(13%)
20대 때	부모(25%), 신앙 친구/선후배/멘토(25%)		목회자(14%)	교회 양육 프로그램/영성 훈련(11%)
30대 때	부모(19%)	목회자(18%), 신앙 친구/선후배/멘토 (18%)		배우자(13%)
40대 때	목회자(23%)	배우자(19%)	신앙 친구/선후배/멘토 (14%)	부모(12%)
50대 때	목회자(27%)	배우자(17%)	신앙 친구/선후배/멘토 (14%)	교회 양육 프로그램/영성 훈련(10%)
60대 때	목회자(34%)	배우자(19%)	신앙 친구/선후배/멘토 (14%)	교회 양육 프로그램/영성 훈련(8%)
70대 이후	목회자(32%)	배우자(18%)	신앙 친구/선후배/멘토 (13%)	교회 양육 프로그램/영성 훈련(10%)

※출처 : 2024 가정의힘, ‘개신교인의 생애주기 교육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02

[생애주기별 교육 실태와 욕구]

받고 싶은 교육, 40대까지 '가정, 자녀 양육', 50대 이후 '노년 영성/삶!'

-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물어본 결과, 장년기까지는 '성경적 결혼과 가정', '성경적 자녀 양육', '성경적 일과 재정 관리'가 가장 많았고, 중년기부터는 '노년의 영성과 삶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노후 돌봄과 죽음 준비'가 가장 많았다. 40대까지는 '가정, 자녀, 재정'에, 50대부터는 '영성, 죽음, 은퇴'에 관심이 많았다.
- 적절한 교육 기간은 교육 주제보다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1~3개월'이 많았는데, 다만 노년 기만 '2주~1개월'이 많았다. 교육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교육 기간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표] 생애주기별 교회에서 가장 받고 싶은 교육과 적절한 교육 기간 (교회 출석 기독교인, 받고 싶은 교육 1+2순위, 상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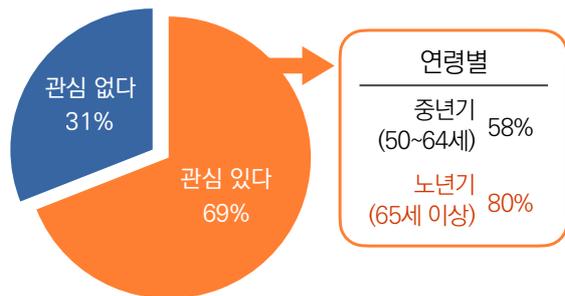
구분		1위	2위	3위
청년기 (만19~34세)	받고 싶은 교육	성경적 결혼과 가정 (39%)	성경적 일과 재정 관리 (32%)	성경적 자녀 양육 (22%)
	적절한 교육 기간	1~3개월	2주~1개월	2주~1개월
장년기 (만35~49세)	받고 싶은 교육	성경적 자녀 양육 (35%)	성경적 일과 재정 관리 (34%)	성경적 결혼과 가정 (29%)
	적절한 교육 기간	1~3개월	1~3개월	1~3개월
중년기 (만50~64세)	받고 싶은 교육	노년의 영성과 삶의 의미 (56%)	그리스도인의 노후 돌봄과 죽음 준비 (38%)	그리스도인의 은퇴 준비 (29%)
	적절한 교육 기간	1~3개월	1~3개월	1~3개월
노년기 (만65세 이상)	받고 싶은 교육	노년의 영성과 삶의 의미 (68%)	그리스도인의 노후 돌봄과 죽음 준비 (59%)	그리스도인의 은퇴 준비 (23%)
	적절한 교육 기간	2주~1개월	2주~1개월	2주~1개월

※출처 : 2024 가정의힘, '개신교인의 생애주기 교육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65세 이상 교인 10명 중 8명, 손주 양육/교육에 관심 있어!

- 50세 이상의 중년기와 노년기 대상에게 손주 양육 및 교육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은 결과 69%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기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8명(80%)이 관심 있다고 응답했다.
- 가장 최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전국보육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부모 외 양육에 도움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으로 조부모가 4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3년 전 결과(38%)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손주 양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증가하고 있는 손주 양육 지원 추세를 감안하면, 손주 신앙에 관한 조부모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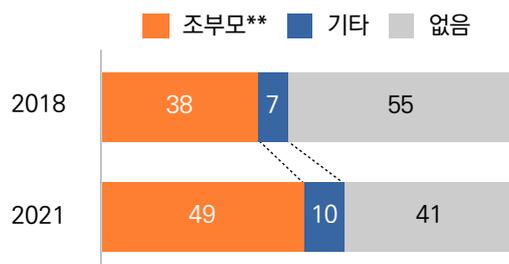
[그림] 손주 양육/교육 관심도*
(50세 이상 중년기/노년기 응답자)



*4점 척도

※출처 : 2024 가정의힘, '개신교인의 생애주기 교육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그림] 부모 외 아이 양육 도움 주는 사람* (영유아 부모, %)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21.12. (영유아를 둔 2,500가구, 면접조사, 2021.08.)

**외조부모 + 친조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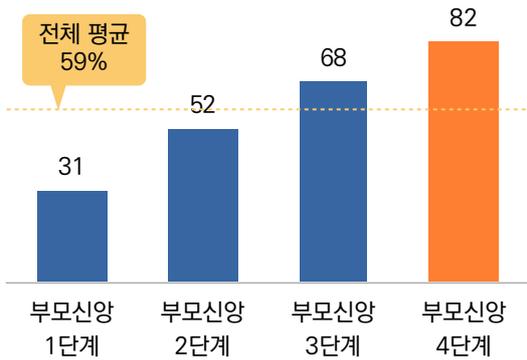
03

[자녀 신앙교육]

자녀의 주일예배 참석, 부모 신앙이 절대적 영향 끼쳐!

- 앞서 살펴본 대로 장년기(49세이하)까지의 관심사는 ‘가정’과 ‘자녀’ 관련한 결과가 많았는데, 기독교인의 자녀 신앙교육은 어떠한지 그 실태를 알아본다. 5~19세 자녀를 둔 기독교인 대상으로 자녀가 주일예배에 ‘자주 참석한다’는 비율을 파악한 결과 전체 평균 59%로 나타났다.
- 자녀의 주일예배 참석 정도는 부모의 신앙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예배 참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부모 신앙단계별 자녀의 주일예배 ‘자주 참석한다’* 비율 (5~19세 자녀 둔 교회 출석 기독교인, %)



※출처 : 2024 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추적조사’,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926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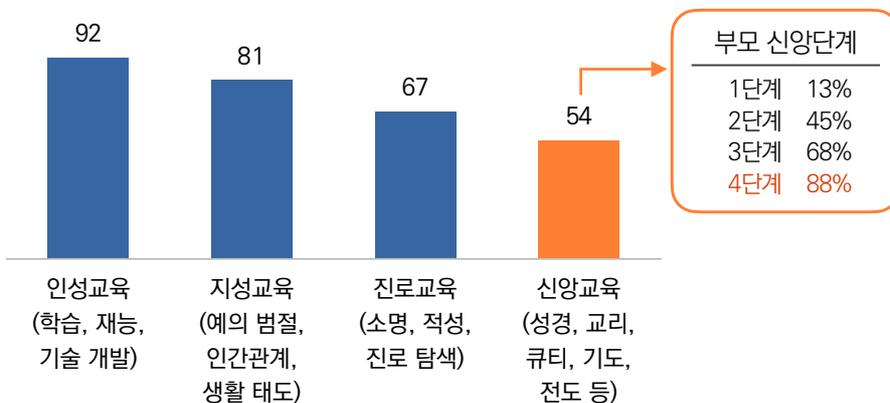
Note) 부모 신앙단계 측정 질문

-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종교가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 2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일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신앙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아 배워가는 중이다
- 3단계 :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해나가는 편이다
- 4단계 :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끌고 있다

기독교인의 자녀 교육, ‘신앙교육’을 가장 덜 가르쳐!

- 자녀 교육에 대한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성교육(92%)’ > ‘지성교육(81%)’ > ‘진로교육(67%)’ > ‘신앙교육(54%)’ 순으로 나타났다. ‘신앙교육’이 가장 낮았으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절반가량만이 신앙교육을 하고 있었다.
-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비율은 자녀의 예배 참석률과 마찬가지로 부모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자녀에게 교육하는 정도 (5~19세 자녀 둔 교회 출석 기독교인, ‘자주+가끔 가르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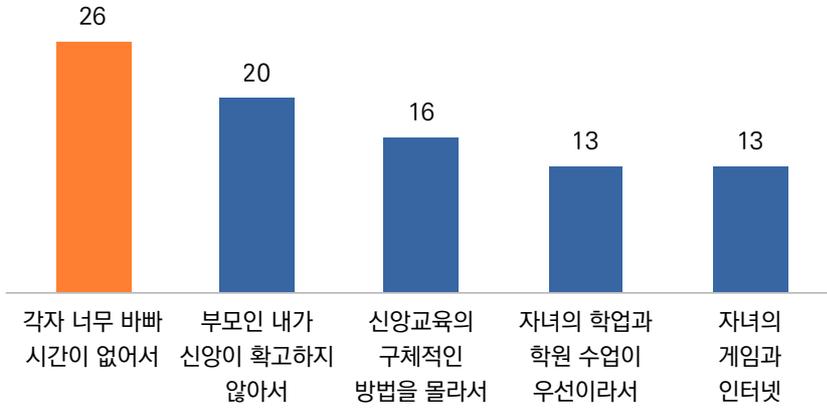
※출처 : 2024 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추적조사’,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926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4점 척도

자녀 신앙 양육 못하는 이유, '바빠서', '신앙이 부족해서', '방법을 몰라서'!

- 자녀를 신앙교육을 잘 못하는 이유로는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가 26%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그다음으로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20%,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가 16% 순이었다. '신앙 부족'과 '방법을 몰라서'는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자녀 신앙교육의 걸림돌 (5~19세 자녀 둔 교회 출석 기독교인,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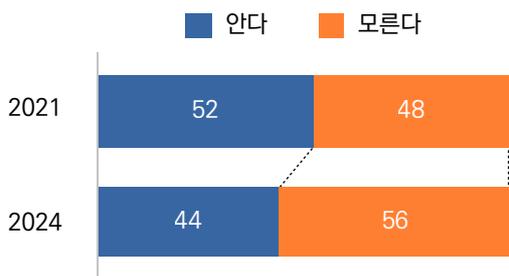


※출처 : 2024 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추적조사',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926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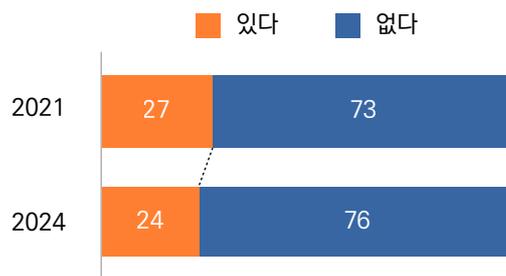
교회 출석 부모, '자녀 신앙교육 방법 모른다' 56%!

- 그렇다면 자녀 신앙교육의 방법 인지율과 훈련 경험률은 이전 대비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법을 모른다는 비율은 56%로 절반 이상의 부모들이 구체적인 자녀 교육 방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3년 전 조사 대비 '모른다'는 비율은 8%p 증가했다.
- 또한 자녀를 둔 기독교인 4명 중 1명 정도(24%)만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자녀 신앙교육의 구체적 방법 인지 여부* (5~19세 자녀 둔 교회 출석 기독교인, %)



[그림]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훈련** 받은 경험 (5~19세 자녀 둔 교회 출석 기독교인, %)



※출처 : 2024 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추적조사',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926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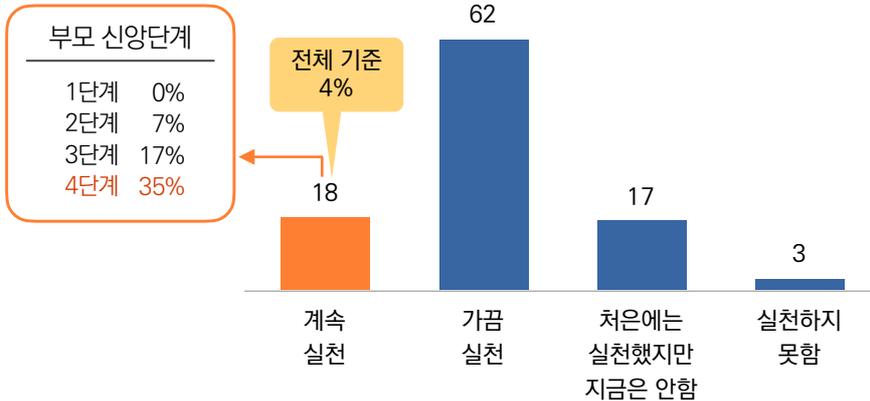
*4점 척도

**강의 외 워크숍이나 역할 실습, 과제 수행, 상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하는 것

집에서 자녀 신앙교육 실천하는 기독교인 부모, 4%!

- 자녀 신앙교육 훈련을 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실천을 해보았는지 물었다. '계속 실천'한다는 부모는 18%, '가끔 실천'하는 부모는 62%로 나타났다. 계속 실천 비율은 부모 신앙단계별로 보면,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계속 실천'하고 있는 비율을 전체 부모 기준으로 환산하면 4%에 불과했다.

[그림] 자녀 신앙교육 훈련 내용 실천 여부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훈련 경험자, %)



※출처 : 2024 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추적조사',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926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04

[노년기 특징과 욕구] 교회 생활과 삶의 전 영역에서 노년기의 긍정지표 가장 높아!

- 이번에는 노년기 기독교인의 특징과 욕구를 살펴본다. '사회문제 관심도', '생활 만족도' 등 개인의 삶 영역과 '봉헌', '기도', '소그룹 활동' 등 교회 생활의 전 영역에서 노년기의 긍정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사회보다 더 빠른 교회가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주는 결과이다.

[표] 생애주기별 일상/신앙생활 평가 (교회 출석 기독교인)

구분	평소 십일조 드리는 비율*	매일 기도 생활	교회내 정기적 봉사	정기적 소그룹 참여도	사회문제 관심도*	전반적 생활 만족도*
전체	57%	36%	35%	38%	76%	83%
청년기 (만19~34세)	42%	17%	28%	33%	63%	80%
장년기 (만35~49세)	45%	26%	27%	26%	68%	77%
중년기 (만50~64세)	63%	46%	42%	41%	85%	84%
노년기 (만65세 이상)	75%	56%	42%	52%	88%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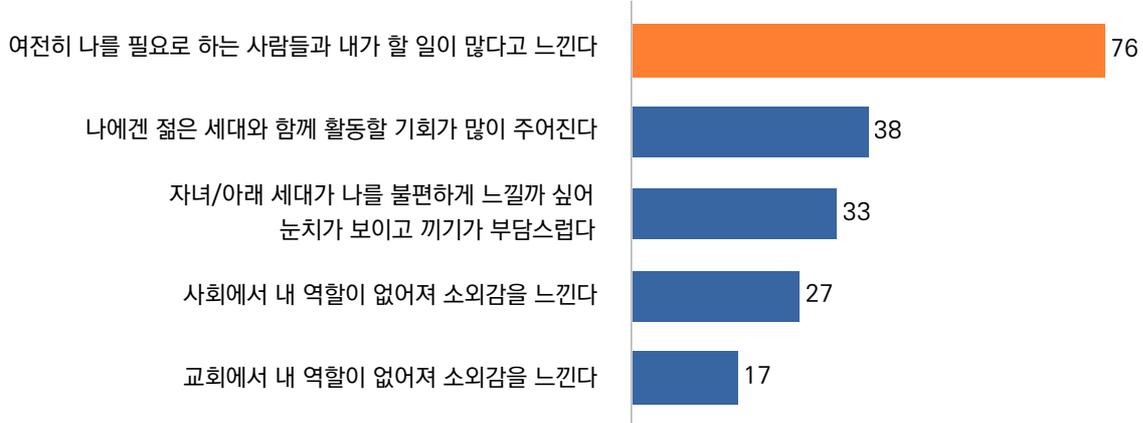
※출처 : 2024 가정의힘, '개신교인의 생애주기 교육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4점 척도

Note)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은퇴 이후 소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던 기존 노인세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새로운 노인세대로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감. (한국교회트렌드2023)

고령 교인, 10명 중 2~3명 교회에서 소외감 느껴!

- 노년기 교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여전히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과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느낀다’ 항목에서는 76%가 긍정적 대답을 해 아직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싶은 마음으로 보였지만, ‘사회/교회에서 내 역할이 없어서 소외감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10명 중 2~3명이(사회 27%, 교회 17%)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림] 노년기 교인의 자기 평가 (65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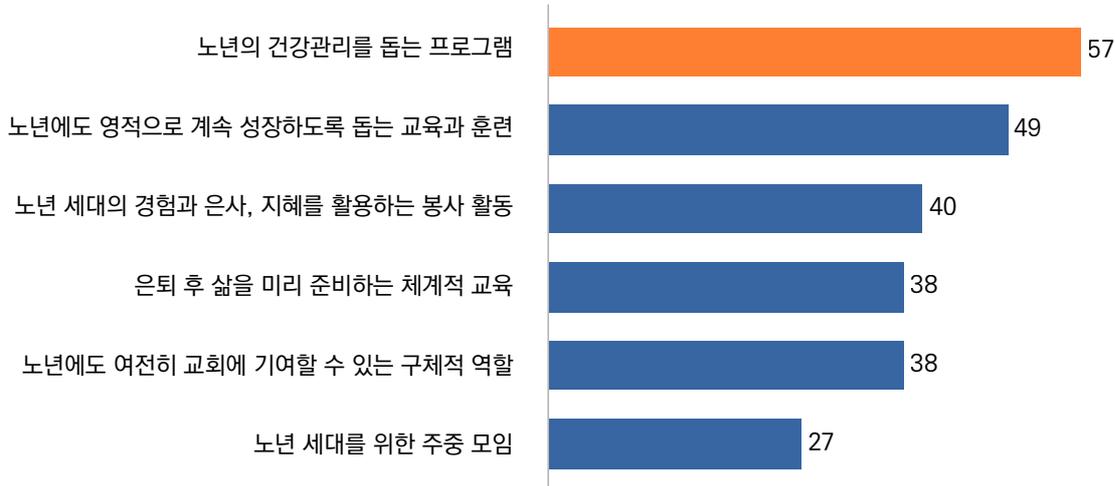


※출처: 2024 가정의힘, '개신교인의 생애주기 교육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4점 척도

노년기, 교회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지원, ‘건강 관리’!

- 노년기 교인이 교회에서 받고 싶은 지원으로 ‘노년의 건강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이 57%로 가장 많았고, ‘노년에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과 훈련(49%)’이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 ‘봉사 활동’, ‘은퇴 후 삶’, ‘교회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욕구가 그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 (65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2+3순위, 상위 6위, %)



※출처: 2024 가정의힘, '개신교인의 생애주기 교육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4.02.22.~03.29.) (c) 2024. 한국IFCJ 가정의힘

이번호 요약

1. 기독교인 부모 절반 이상이 자녀 신앙교육 방법 몰라!

- 청소년 이하 자녀를 둔 기독교인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비율(54%)은 '인성교육(92%)', '지성교육(81%)', '진로교육(67%)'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 자녀 신앙교육 방법을 모른다는 비율은 56%로 3년 전 조사때(48%)보다 증가했다.

2. 교회에서 받고 싶은 교육, 40대까지는 '가정과 자녀 관련', 50대 이후는 '노년 영성과 삶'!

- 교회에서 받고 싶은 교육으로 40대까지는 '성경적 결혼과 가정', '성경적 자녀 양육'이 높았으며, 50대 이후로는 '노년의 영성과 삶의 의미'가 가장 높았다.

3. 노년기 교인의 영적 욕구와 교회 활동 지표 크게 높아!

- 신앙 관심사 1위로 노년 이전까지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가장 높지만, 노년 이후에는 '성령 충만/영적 성장'이 가장 높았다.
- '기도 생활', '봉헌', '소그룹 참여', '생활 만족도' 등 교회 생활과 삶의 전 영역에서 노년기의 긍정지표가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기사] 가장 높은 긍정지표 노년 세대가 한국교회 미래 희망 (코람데오닷컴)
- ▶ [영상] 가정을 세우는 3가지 기초 (독수리기독교학교 단혜향 교장, 한국IFCJ 가정의힘)
- ▶ [영상] 영성노년학/노화는 아름다워 (김기철 한국영성노년학연구소 소장, 두란노)

관련 성경 구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목회 적용점

사람이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라 처한 환경과 요구되는 것들이 달라진다. 각 단계마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연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거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시기별로 놓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접근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목회자는 성도의 생애주기에 따른 목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교회 교육은 집합적으로 교육하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생애주기별로 다른 관심사와 교육 욕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노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기도생활, 헌금생활, 소그룹 참여 등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전 세대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일상의 생활 만족도도 높았다.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노년 세대는 육체의 쇠약과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 노년의 신앙과 지혜는 교회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는 노년 교인에게 새로운 역할을 통해 소명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조사 결과 은퇴 노인들은 교회에서 은퇴 전과 동일하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어 한다. 노인이 다시 꿈을 꾸게 하는 것, 이것이 이미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미래이다.